

[1957-02-19, 여름 사역 및 기도편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지난 몇 달간의 사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수백 명의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편지 이후 저는 워싱턴주 워내치(Wenatchee), 오리건주 워렌(Warren),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Cleveland), 일리노이주 마크햄(Markham)과 시카고 하이츠(Chicago Heights) 및 캘리포니아주 팜데일(Palmdale), 리세다(Reseda),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 등지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워내치(Wenatchee)에서는 참석 인원이 많아 대학 강당으로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겨야 했으며, 지난 토요일 밤 예배에 참석한 한 목사는 그것이 워내치(Wenatchee)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전도 집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교, 모르몬교 선교사들의 부인들을 비롯하여 가톨릭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스완슨 부인은 제가 어제 받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얻은 결과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족으로서 헤어져 있는 상황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듭니다." 아멘.

다음 집회는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을 즈음인 6월 4일부터 16일까지 미네소타주 포스톤(Fosston)에서 진행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월 1일 이후로 거의 계속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고, 선교 사역이 너무 커져서 이번 여름은 대부분 시카고 사무실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저희의 사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희망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규 보육원 세 곳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후원자를 주셨습니다(256 명). 그러나 한국에 있는 수백 명의 생명과 영혼을 구할 필요는 여전히 크고, 기회는 무한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 요청이 여러 번 왔었고, 기도 가운데 그중 두 군데를 돕기로 했습니다. 1) 홀리네스 앤 그레이스 보육원(Holiness and Grace Orphanage) 어린이 116 명 중 61 명을 후원해 왔고, 다른 기관에서 나머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보육원 원장은 지원 철회를 통보받았습니다. 그와 선교사는 우리가 보육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간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기도 후에 저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55 명의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후원자를 구해야 합니다. 2) 부산에 있는 힐사이드 기독교 보육원에는 45 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미국 MP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보육원 원장이 피아노와 오르간을 수리해서 번 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사이자 육군 간호사인 그는 우리에게

전체 상황을 알려주며 절박한 필요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은 기도 끝에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에 13 번째 보육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친구여, 여러분은 제가 곧 총 100 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후원자가 확보될 때까지 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 후원금을 보내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월 6 달러로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곧 많은 후원자가 월 후원금을 최소 6 달러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이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한국의 미래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는 이 멋진 기회에 대해 친구, 친척, 교회 내 다양한 그룹들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 저에게 편지를 쓰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명 또는 다른 한 명을 추가 후원을 하실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저에게 편지로 알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깊은 관심을 담아,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추신.

한국에 기근이 왔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지난가을 한국의 벼농사 실패로 인해 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끔찍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근이 닥쳐 나무껍질과 식물 뿌리조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 뉴 라이프 칠드런즈 보육원(New Life Children's Home)의 원장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 세 번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후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께, 세 번째로 미국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침 예배 때마다 어린이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네, 여러분께서 저희 13 개 보육원의 어린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에 이들은 먹을거리를 위해 나무껍질을 벗기고 뿌리를 캐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도 없고 돌봐 주는 이도 없어 거리에서 구걸하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도록 안타깝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무껍질과 뿌리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어린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들 중 많은 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위해 이 많은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여름휴가에 수백 달러를 쓰고 있는 동안, 이 한국 어린이들은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관대하게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그것은 가장 선하게,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1956 년 감사보고서** (1957 년 2 월 19 일)

관계자 여러분께,

한국의 고아, 전도사 및 기타 한국의 전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법인,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6년 1월 1일 잔액	1,551.14
수입	34,576.18
	<hr/> 36,127.32
지출	26,942.09
1956년 12월 31일 잔액	<hr/> 9,185.23

보유 잔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
고아 계정	8,543.79
한국 전도사	241.00
기타 한국 전도활동	400.44
	<hr/> 9,185.23

감사 결과, 이 단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는 총수입의 약 7%를 차지하며, 기타 지출은 총기부금의 일부에 불과하여 모든 기부금이 높은 비율로 한국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장부는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표시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에 표시된 잔액이 정확하며, 모든 기부금이 기록되었고, 기부자들에게 영수증이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

엘머 T. 올슨(Elmer T. Olson), 공인회계사, 감사인

일리노이주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호돈 애브뉴(Hawthorne Ave) 1915.

(Page 2 후원자/고아들 감사 편지 번역 생략)